요즘 이곳 알로타우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무섭게 비가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멈추기도 하고, 해가 쨍하다가 그런 해를 비웃듯이 비가 한바탕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빨래를 밖에 널어야 하는 저희로서는 그저 하늘 눈치를 볼 뿐입니다.

6월이구나… 했는데 벌써 첫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마을에 쌀을 보내면서 '조금만 버텨 주세요. 이제 곧 7월이 올 거예요. 밭의 얌이 잘 자라고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집집마다 쌀 한 포대씩 받으며 기뻐할 모습이 떠올라 저희 마음도 좋았습니다.

카니누와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밭에 가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그래야 땅이 달궈지기 전에 밭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일 년 내내 한여름 날씨인 이곳, 이른 오전인데도 밭에서 한참을 일하다 보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낮의 해는 너무 뜨거워 밭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잠시 근처 강에서 빨래도 하며 몸을 식히고 낮잠도 청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다시 일을 시작해서 어둑어둑해질 때에야 밭에서 캔 농작물을 담은 바구니를 이고 집으로 옵니다. 전기가 없으니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희미한 손전등에 의지해 장작에 불을 붙이고 얌, 고구마, 바나나 등을 익혀 저녁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카니누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 모습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밭에 가도 가지고 올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와 사이클론이 밭의 농작물들을 다 쓸어 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넋 놓고 앉아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 왔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얀 쌀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그들이 있는 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쌀이 그들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겠지요? 카니누와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고마워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요한복음 2장)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분명 물을 담아서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으니… 하인들이 참으로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쌀 심부름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쌀을 살 돈이 준비되는 것에서부터, 쌀을 사고 또 부두까지 쌀을 배달하는 일, 마을 가는 배를 찾고 배에 쌀을 싣는 일, 그리고 마을에 배가 잘 도착하고, 보낸 쌀이 각 가정에 잘 나누어지기까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11) 카니누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 선교사가 번역자문위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언어팀의 자문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토푸라 언어 누가복음 자문 점검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지금 카니누와 번역팀이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문 점검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오시는데 2주 동안 토푸라 팀을 비롯해 점검에 참여하는 모두가 말씀에 푹 빠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마을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속테스, 잭, 레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카니누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준 동역자님께 카니누와 말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기기꾸 나까따모께나!

2019. 6. 8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저희 PNG 연락처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PNG 우편 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우편번호) 211
PAPUA NEW GUINEA